

PPS Nice대회 참관기

김 광 응
KIST 고분자공정연구실

4월 18일(수요일) 오전 9시 De Gennes 교수의 plenary lecture "Dynamics of Entangled Polymers : Application to Adhesion Process"로 시작된 Polymer Processing Society(PPS)의 제6차 annual meeting은 3일간 4개의 발표장에서의 oral presentation과 2번의 poster session으로 진행되었다. 총 12개의 symposia로 구성된 이번 연차 총회는 약 530명이 참석하여 총 33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참고로 각 symposium의 발표 논문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Polymerization and Reactive Processing : KN-2, OP-17, P-10, 총 29편
2. Rheology and Rheometry : KN-2, OP-19, P-13, 총 34편
3. Molding Technologies : KN-2, OP-19, P-10, 총 31편
4. Plastics and Rubber Extrusion : KN-2, OP-19, P-16, 총 37편
5. Fibers and Films : KN-2, OP-17, P-7, 총 26편
6. Structure Development in Processing : KN-2, OP-13, P-13, 총 28편
7. Polymer Blends : KN-2, OP-19, P-18, 총 39편
8. Mixing and Compounding : KN-2, OP-13, P-3, 총 18편
9. Polymeric Composites : KN-2, OP-22, P-9, 총 33편
10. Liquid Crystalline Polymers : KN-2, OP-22, P-14, 총 38편
11. Solid State Processing and Other Innovative Technologies : KN-1, OP-7, P-4, 총 12편
12. Automation Process Control and Sensor Technology : KN-1, OP-9, P-2, 총 12편

* KN-Key Note Speak, OP-Oral Presentation, P-Poster

이들 symposia 중 특히 polymer blends와 liquid crystalline polymer session이 가장 왕성한(?) 발표장이 되었는데, 현재의 고분자 분야의 연구 추세를 잘 대변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4개의 발표장을 다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논문의 질이 과거 어느 때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meeting 후 local committee와 executive committee의 합동 반성회(?)에서 언급되었다. 장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여서 인지 모르지만 polymer processing에서 자의든 타의든 꽤나 이름깨나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여 review 또는 original paper를 발표하여 상당히 열띤 분위기 였다고 본다. 이 중 몇몇은 polymer processing과는 거리가 먼 것들도 있었지만, 점차 각 학문 분야가 복합화되어 가고 있어 전공 분야만 고집해서는 올바른 연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는지…….

Tadmor, Ziabicki, Laun, Paul의 강연은 많은 청중을 끌어 들여 발표장이 비좁았고, 개인적으로는 Leibler와 Teyssie의 발표가 흥미가 있었다.

이번 Nice meeting에는 한국에서도 몇분이 참석하였는데, 한가지 특이했던 점은 교수분들은 부부 동반

이였고 비교수들은 모두 혼자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비교수파끼리 모이게 되었다. Cannes, Monaco, Monte Carlo 등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지중해의 휴양지들이 근처에 있어 “염불보다는 잣밥에 더 마음이 있다”는 식으로 meeting보다는 관광이 더 신나는(?) 곳인지도 모르겠다. 한 팀은 rent car로 Italy의 칸소네 고장 San Remo까지 갔다 왔으니까. 또 Monte Carlo에서는 늦은 밤에 몰려가 Monaco에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하기도 하고, Attila라는 말이 포함된 식당에서 wine과 고기를 마음껏 먹고 마시던 기억도 있다(buffet식으로 자기가 직접 구워 먹음). 자갈밭인 Nice 해변을 거닐면서 소재 확인 증명 사진을 몇장 찍었지만 혹시 믿지 못할까봐 자갈 몇개를 불법 반출해 왔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휴양철이 아니어서 아침 저녁에는 꽤나 쌀쌀했고 더구나 절끔 절끔 비도 자주 내려서 Nice와 그 근방의 진수(?)를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은 어디로 가나 음식이 문제여서 되도록 동양식에 가까운 곳을 찾다보니 중국 식당이 되는데,

주로 태국과 월남에서 온 중국인(?)이 하고 있어 약간 다르기는 해도 먹을 수 있었다. 아직 입이 고급이 되지 못해선지 모르겠으나 거금을 주고 참석한 불란서식 banquet 음식이 도무지 구미에 맞지 않아(누구는 밤새 속이 불편했다든가), 다음날 생선 요리집을 찾아가 더 적은 돈으로 실컷 먹고 약간 남기고 온 기억이 난다. 점심때 누구는 열심히 고추 기름을 찾기도 했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귀국 비행기안에서 매운 라면 한그릇 먹을 때까지 김치 한조각 못먹었으니까. 대부분의 유럽 대도시는 한국 음식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Nice근처는 아예 없으므로 김치 채질인 사람은 앞으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다. 물론 불란서식 음식이 구미에 맞는 사람은 예외이고…….

이번 여행에서 또 하나 느낀 점은 유럽의 차들이 대부분 소형이라는 것이다. 버스도 좁은 길을 달리기 때문인지 폭이 상당히 좁았고, 승용차도 기아의 프라이드보다 더 작은 차들이 많았다. 특히 이태리의 차들은 거의 소형차여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뭔가 찢리는 곳이 있었다.

PPS의 연차총회를 Nice에서 개최함으로 세계적 휴양지인 French Riviera를 한번 가 본 경험을 남기게 되었는데, 다시 가 볼 기회는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서울대의 J교수는 아마도 잊지 못할 Nice meeting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카메라를 포함하여 meeting에서 발표할 원본, slides, 서류를 넣은 가방을 Nice공항에서 몽땅 도둑 맞았으니까. 덕분에 기억을 더듬어 transparency를 재작성하여 무사히 발표를 마칠 수는 있었지만……。 부자들만 산다는 Nice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니 향후 이곳을 방문할 사람은 주의해야 할 점이다.

